

한 청년돌격대장의 수기



홍 남 수

내가 고선숙어머니를 처음 알게 된것은 천성-성산천 배수갱공사가 한창 벌어지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그날 나는 ××공장에서 권양기부속품을 받아가지고 돌격대로 돌아오고있었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졌다. 그래서인지 도로에는 다니는 차도 없어 무거운 부속품을 넣은 배낭을 등에 지고 걸어야 하였다.

나는 배낭끈이 두어깨를 아프게 파고들었지만 고개를 수그리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놓았다. 한 5리가량 길을 축냈을 때 등뒤에서 자동차소리가 들리었다. 돌아보니 화물차 한대가 오고있었다.

나는 무작정 자동차앞으로 뛰쳐나가며 손을 쳐들었다.

《운전사동지, 같이 갑시다!》

《미쳤어? 죽자고 그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운전사가 차문을 벌컥 열며 짹 소리를 내질렀다.

《운전사동지, 안됐습니다. 천성으로 들어가는 갈림길까지 좀 태워주십시오.》

운전사는 두눈을 부라리며 열었던 차문을 뿡 닫아버렸다. 적재함에 타고있던 몇사람이 웬일인가 하여 목을 빼들고 내려다보았다. 그러건말건 나는 차에 올라탔다.

사실 내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한것은 권양기부속품을 눈이 새까매서 기다리고있을 돌격대원들을 생각해서였다.

그날 새벽 잘 돌아가던 권양기가 갑자기 멎어버렸다.

권양기를 해체해보니 큰 치차와 물려있는 작은 치차의 이빨이 새끼씩이나 부러졌던것이다. 지체없이려단자재창고에 사람을 보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예비가 없었던것이다.

대원들은 권양기에 미련을 버리고 혼연히 질통을 지고 경사도가 30도가 넘는 사경으로 내려갔다. 질통으로라도 버럭을 저울릴 배심이었다.

우리 길영조청년돌격대는 천성-성산천 자연흐름

식 배수갱공사에서 제일 조건이 어렵고 불리한 6사갱을 맡고있었다.

천성-성산천 배수갱공사는 큰 의의가 있는 공사였다. 이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면 천성청년탄광과 령대탄광에서 수백대의 뿔프와 전기, 자금,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석탄생산을 훨씬 더 올릴수 있었다. 그리하여 도에서는 각 시와 군들의 청년들로 돌격대를 조직하고 배수갱공사를 시작한것이였다.

길영조청년돌격대가 조직된것은 불과 몇달전이었다.

지난날 청춘의 꿈과 리상을 헌신짝처럼 켜버리고 시대박으로 밀려나 사람들의 타매를 받으며 살던 우리가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하였을 때 어머니당조직에서는 길영조영웅의 이름을 가진 청년돌격대를 조직해주고 배수갱공사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6사갱을 맡겨주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크나큰 믿음이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있을수가 없어 ××공장에 가서라도 치차를 받아오려고 이렇게 떠났던것이다.

자동차적재함 앞쪽구석에 자리를 잡고앉은 나는 누구인가의 눈길이 자꾸 얼굴에 와닿는 느낌에 고개를 돌리었다.

한 녀인이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눈귀에 잔주름이 잡히고 얼굴살갗이 부드러운 50대의 녀인이었다.

《임자 함영호가 아닌가?》

나는 녀인의 입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오는것이 놀라와 한순간 굳어진 눈길로 그를 보았다.

녀인은 눈가에 선량한 웃음을 떠올리었다.

《난 임자랑 길영조청년돌격대원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걸 봤네. 가만, 이거라도 목에 감게. 그러다 랄 만나겠네.》

《일없습니다.》

《그러지 말구 어서 감게.》

그는 내 어깨의 눈을 털어주며 목에 털수건을 감아 주었다. 푸근한 털수건은 목을 따뜻이 덥혀주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듣자니 입자네 길영초청년돌격대가 배수갱공사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한다지? 입자네들이 참 용네.》

《그걸 어떻게 다...》

《은 나라가 다 알고있는 길영초청년돌격대를 난들 왜 모르겠나. 그래 입잔 어데 갔다 오는 길인가? 눈이 강산처럼 오는데.》

나는 녀인의 스스럼없는 이야기에 이끌려 돌격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녀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일뿐 다른 말은 더 하지 않았지만 낯빛이 한층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자동차는 탄광쪽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에 멈춰섰다. 내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가만.》 하고 녀인이 운전사에게 말했다.

《운전사동무, 탄광쪽으로 좀 돌아가지 않겠어요? 대장동무가 빨리 돌격대로 가야 할 일이 있는데.》

《눈이 이렇게 오는데 고개길에 차가 일없을가요?》

《됐습니다, 얼마 멀지 않은데.》

서둘러 차에서 내려 한동안 걷던 나는 그때에야 녀인의 털수건을 그대로 목에 두르고있는 것을 알고 돌아섰지만 자동차는 벌써 눈밭속으로 멀어진 뒤였다.

돌격대로 돌아온 다음에도 내 머리속에는 이름모를 그 녀인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고 때없이 떠오르곤 하였다. 비록 잠깐 만났다가 헤어진 녀인이었지만 그의 다정한 목소리는 귀전을 떠나지 않았고 그윽한 눈빛은 나의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듯싶었다.

(그는 누굴가?)

내가 그 녀인을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열흘가량 지나서였다.

3소대장이 나에게 오더니 누군가가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평성에서 왔는데 대장동무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날?! 누굴가?》

나는 씨영씨영 걸어서 병실로 갔다.

한 녀인이 병실앞마당에 서있었다.

(아, 그 어머니구나!)

나는 반가움에 온몸이 확 달아올라 뛰다싶이 다가갔다.

녀인이 환히 미소를 지으며 마주왔다.

《대장동무랑 돌격대원들을 만나보고싶어 왔어요. 그때 헤어진 후 자꾸 보고싶어 어디 건디겠더라구. 그날 무거운 부속품을 지고 여기까지 오자니 무척 힘들었겠구만. 오면서 보니 큰길에서 여기까지 10리가 넘겠는데.》

《대원들이 마중나왔습시다.》

《그런걸 난 또 출창 걱정을 했지.》

나는 아직 그가 누구이며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지금껏 함께 생활한듯 한 친근감을 느꼈다.

《저... 평성에서 오셨다지요? 거기서 무슨 일을...》

녀인은 대답은 않고 다른 말을 꺼냈다.

《내 입자네 돌격대원들을 친아들삼아 다닐테니 이제부터 가깝게 지내자구.》

녀인은 그날 돌격대에 있으면서 손이 닿는대로 병실안팎을 거두어주었다. 어찌보면 세간난 아들이나 딸네 집에 찾아와 하나라도 일손을 도와주고싶어 원심을 쓰는 어머니를 보는 듯 했다.

그는 저녁밥은 자기가 짓겠다면서 식당에 들어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동자질을 하였다. 식당안에서는 여느때없는 가락맞은 칼도마소리가 울려나왔다. 그 소리에 이끌려 식당안을 들여다보니 그 녀인이 삭둑삭둑 무우를 썰고있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모두 곱배기를 청할거예요.》

취사원처녀가 하는 말이였다.

《그건 어째서?》

《어머니가 밥이랑 찬이랑 맛있게 하나니까요. 어머니 우리 돌격대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처녀랑 돌격대원들이 보고싶어 왔지. 꿈에 자꾸 보이더구나.》

《참 재미있네.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안다고 꿈에 보이겠어요?》

나는 녀인의 입술에 항용 떠도는 미소와 온화한 눈빛에서 그가 돌격대원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품고있다는 것을 엿볼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 녀인이 범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보통키에 수수한 얼굴은 다른 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그 무엇인가 크고 웅심깊은 것이 자리잡고있었다.

며칠후 한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우리 길영초청년돌격대를 물심량면으로 도와주는 명예대원이였다.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나는 평성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우린 아직도 그 어머니의 이름도,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와 인연을 맺고싶어 왔다고 할뿐 다른 말은 더 하지 않았습시다.》

《음-》

내 말을 주의깊게 듣던 그가 생각되는 것이 있는지 그 녀인의 생김생김을 물었다. 나의 대답을 듣던 그가 무릎을 철썩 때리는 것이였다.

《알겠소. 고선숙어머니요. 글썽 내 대장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좀 짙이는데가 있더라니까. 허허.》

《그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그한테 다가붙으며 다우쳐 물었다.

《그 어머니는 대흥특산물식당책임자요. 그가 여기도 찾아왔됐구만. 그 어머니 지금껏 소문없이 인

민군대원호사업도 많이 하고 도에서 벌어지는 중요 건설장들을 찾아가곤 하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잘 모를거요. 그는 사람들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했고 또 바라지도 않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입술이 두툼하고 이마가 넓은 그가 푸수한 얼굴에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난 오래전부터 그를 잘 알고있소. 이제 대장동무도 그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될거요.》

(그런 어머니였구나!)

나는 선숙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우렷이 떠올라 얼마전 돌격대에 찾아왔다가 저녁 늦게 돌아간 길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

배수갱공사는 어느 한순간도 마음의 탕개를 늦출 수 없는 일이었다.

물동이 터지는가 하면 석회암층의 감탕이 터져 공사에 어려운 난관을 조성하곤 하였다. 일단 감탕이 터지면 삽시에 갱을 삼켜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런데 그런 감탕이 우리앞에 나타날줄이야...

어느날 착암을 하던 3소대장이 갑자기 놀라며 날 찾는 것이었다.

《대장동지.》

《왜 그러오?》

버럭을 담던 나는 그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여길 좀 보십시오.》

3소대장이 안전등으로 한곳을 비치었다.

《아니?!》

석회암층에서 흘러나오는 누르끼레한 감탕물을 발견한 나는 흠칫 어깨를 떨었다. 감탕이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착암을 중지하고 대원들을 모두 철수시키오. 작업도구들도 하나도 빼놓지 말아야겠소. 그리고 한사람도 여기에 들여놓아서는 안되겠소.》

《예. 동무들 철수!》

작업조는 서둘러 착암기며 작업도구들을 거두어 가지고 철수하였다.

대원들의 부산스러운 발소리가 잦아들자 갱안에 정적이 깃들었다.

이따금 갱천정에서 퐁퐁퐁 떨어지는 물소리가 어느때없이 크게 울리었다. 석회암층에서는 여전히 누르끼레한 감탕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점차 그 량이 많아졌다.

(감탕량이 얼마나 될가?)

나는 나라난 실태를 려단지휘부에 보고하려고 현장휴계실로 나왔다.

려단지휘부의 전화번호를 꼭꼭 누르는데 3소대장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대장동지, 터졌습니다.》

《뭐라구?!》

나는 불판에 주저앉은 사람처럼 후닥닥 일어났다.

《갱이 감탕에 몽땅...》

《비키오!》

앞에 막아선 3소대장을 밀어제끼고 갱안으로 뛰쳐들어간 나는 더 들어가지 못하고 한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감탕이 갱을 메워버린 것이었다.

《대장동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3소대장은 주먹으로 갱벽을 치며 분을 터치었다. 터벅터벅... 나는 발이 닿는대로 향방없이 걸어갔다.

려단에서는 벌어진 사태를 수습할 방법을 토론하였지만 서로 엇갈리는 의견으로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감탕을 퍼내고 본래대로 굴진을 내밀자는 의견도 있었고 다른데로 에돌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데로 에돌자는 의견에 치우쳤다. 그럴것이 갱안의 감탕을 다 퍼내자면 작게 잡아 두달은 더 걸릴수 있다는 답이 나온것이다.

《대장동무 어떻게 생각하오?》

배수갱공사를 책임진 려단장동지가 부리부리한 눈길을 나한테로 던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동시에 내 얼굴에 집중되었다.

나는 내 대답에 모든 일이 결정되는듯싶어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처음으로 자연의 힘앞에 그 어떤 두려움을 느낀 것이였다.

《음...》하며 려단장동지는 나에게서 눈길을 돌리었는데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비껴였다.

나는 왜서인지 마음이 불안해지는것을 느꼈다.

얼마후 밖으로 나온 나는 어데론가 스적스적 건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찬바람이 불어왔다. 드러난 목이 별로 썩늘하여 옷깃을 울리던 나는 부지중 숨을 길게 내쉬었다. 언제인가 내 목에 바람이 들세라 털수건을 꼼꼼히 감아주던 선숙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다.

문득 그 어머니가 하던 말이 귀전에 되살아났다.

《대장동무, 물길을 빨리 관통시키라구. 그래야 석탄을 더 많이 캐지. 내 회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겠네.》

《기다리십시오, 어머니. 우린 한달안에 6사갱을 무조건 관통시키겠습니다. 6사갱을 관통시키면 어머니한테 꼭 소식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날 나는 대원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이렇게 대답했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려단장동지가 발소리를 크게 내며 이쪽으로 걸어왔다.

《대장동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있소?》

《돌격대에 찾아왔던 선숙어머니를 생각하겠습니다.》

《대장동무가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걸 보니 인연이 꽤 깊어진것 같구만. 나도 얼마전에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소. 쉽지 않은 어머니더구만.》

《려단장동지, 우린 6사갱을 관통시키면 그 어머니한테 먼저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겠습니까.》

려단장동지의 얼굴이 대번에 확 밝아졌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대장동문 그 말을 왜 기운없이 하오?》

《...》

《알만하오. 대장동무, 동무네는 길영조영웅의 이름을 가진 청년돌격대요. 동무들의 머리우에는 영웅의 이름이 새겨진 돌격대기발이 항상 휘날리고 있소. 동무들은 영웅의 이름을 기발에만 새길것이 아니라 심장속에도 새겨야 하오. 그쭈한 일에 손뎌를 놓고 주저앉은 대장동무를 그 어머니가 보았다면 아마 실망했을거요.》

돌격대병원실에서 대원들이 부르는 《청춘송가》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보오. 대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좋은가. 자, 가서 우리도 노래를 부르고 냅다 돌격하지요.》

려단장동지는 주먹으로 내 어깨를 툭 치고나서 제먼저 병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날 우리는 인원을 선발하여 갱복구조를 따로 조직하였다. 이를테면 돌격대안에 또하나의 《돌격대》를 조직한것이였다. 갱복구조를 발표하자 명단에서 빠진 대원들이 들고일어났다.

《대장동지, 왜 우리만 속 빼놓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대장동지, 섭섭합니다.》

나는 그들을 어떻게 리해시켜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도움을 청하듯 려단장동지를 쳐다보았다. 려단장동지는 소리없이 웃을뿐 아무런 말도 없었다.

사실 그들에 대한 믿음이 희박하여 명단에서 빼놓은것은 결코 아니였다. 갱복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자면 정신적인 각오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조건도 준비되어있어야 하기에 그런 결심을 내린것이였다. 하지만 대원들이 그럴수록 나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믿음이 한층더 크게 자리잡게 되였다.

갱복구조대원들의 가슴속에서는 갱을 복구하기 전에는 절대로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맥동치고있었다.

갱복구전투는 시작되였다. 교대가 따로없는 전투였다. 전투는 힘겨웠다.

어느날 나는 현장휴게실에 나와 려단에 사업보고를 하고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몰려드는 피곤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결에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진창을 밟으며 어데론가 달아나는 나를 어머니가 따라오며 소리쳤다.

《영호야, 너 어데로 가니? 돌아와라, 어서!》

《어머니, 따라오지 말아요. 난 불효자식이예요.》

《영호야.》

《앗!》

그만 발을 헛디딘 나는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었다. 인자한 눈길로 나를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주름살이 가득했고 머리칼도 하얗다.

《정신을 차렸구나!》

《어머니, 날 용서해줘요. 난 사람이 아니예요!》

《됐다. 이젠 에미결을 떠나지 말아. 그렇게 하지?》

《어머니, 다시는 나라앞에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결을 떠나지...》

나는 목이 짝 잠겨올라 말끝을 흐리며 눈을 감았다. 눈귀로 더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마구 형클어진 내 머리칼을 말없이 쓸어주는 어머니의 손은 남자들 손처럼 마디가 불거지고 거칠었지만 한없이 부드러웠다.

아,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어! ...

누구인가의 말소리에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뜻밖에도 선숙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오셨군요!》

《내가 피곤하게 자는걸 깨웠구만. 꿈에서 어머니를 본게지? 자꾸 어머니를 찾는걸 보니.》

《예.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만난것은 나라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범하고 법기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후 어머니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길영조청년돌격대장이 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찾아왔지만 난 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 훌륭한 아들이 되어 어머니를 만나리라 결심했습니다.》

나는 짝어말할수 없는 어떤 감정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속을 터놓았다.

《이제 아들이 장한 일을 하고 찾아가면 어머니와 고향사람들은 두팔을 벌려 반겨맞아줄거네. 그날은 멀지 않았네. 자, 이걸 대원들한테 나누어주라구.》

선숙어머니는 큼직한 보파리를 내놓았다.

《아니, 이건?》

《고무장갑이네. 우리 식당종업원들이 마련해서 보낸거네.》

나는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그저 두눈만 습벅이였다.

불현듯 처음 돌격대에 찾아온 선숙어머니와 사갱에 내려갔던 때가 생각났다.

《여기가 우리가 일하는 갱입니다.》

《갱이 요란하구만. 대원들은 어디 있나?》

갱안을 둘러보던 선숙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물이 출렁출렁 고인 수평갱쪽을 가리켰다.

《저쪽에서 굴진을 하고있습니다. 착암기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가보자구.》

《그만둡시다. 물이 차고 깊습니다.》

《아무렴 빠져죽기야 하겠나.》

선숙어머니는 제먼저 물에 성큼 들어섰다. 물이 발목을 넘었지만 전혀 아랑곳없이 걸싸게 걸어갔다. 돌격대원들이 일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바지

가 화락하니 짓어있었다.

한창 착암을 하고있는 돌격대원들을 이윽히 지켜 보던 선숙어머니는 그들이 입고있는 장화가 달린 고무바지를 호기심어린 눈길로 깐깐히 살펴보았다.

《이 고무바지가 정말 좋구만. 장화까지 달렸으니 발에 물이 들어가지도 않을게요.》

《도장에서 특별히 주문하여 만들어 왔습니다. 발을 계속 물속에 잠고있으면 병이 생긴다면서.》

《도장에서?》

고무바지에서 눈길을 땀 선숙어머니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착암수의 손에서 장갑을 벗기였다. 장갑을 비틀어 짜니 물이 툭툭 떨어졌다.

그때 선숙어머니는 돌격대원들의 손에 고무장갑을 끼워줄 결심을 한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우리 돌격대원들이 깊이 자리잡고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 알기에는 아직 먼 거리에 있었다.

선숙어머니는 휴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동안 돌격대에 그냥 남아있었다. 나는 선숙어머니가 분명히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 그런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면 착잡하던 마음속에 슬며시 안정이 깃들곤 하였다.

알고보니 선숙어머니는 20년 가까이 대흥특산물식당책임자로 일해오고있었다.

그가 처음 왔을 때는 작은 지짐집이었다. 그후 도소재지들에 각 군의 특산물식당이 나오면서 지짐집도 대흥특산물식당으로 바뀌었다. 도소재지의 체모에 맞게 특산물식당을 새롭게 꾸릴 결심을 한 선숙어머니는 낡은 식당을 대담하게 헐어버리고 종업원들의 힘으로 새로 번듯이 지었다.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산골군의 이름을 단 특성에 맞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였다. 결과 오늘에 와서 대흥특산물식당은 시에서 손꼽히는 봉사기관으로 되었다.

하루는 내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선숙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는게지요?》

《그래, 오늘은 정말 마음이 즐겁구만.》

그의 기쁨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몇년전부터 인연을 맺고있는 어느 한 영예군인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온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선숙어머니가 걸어온 발자취를 새삼스럽게 더듬어보게 되었다.

그는 지금껏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생의 흔적을 남겼는가?

남들의 눈에 쉬이 뜨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여도 자기의 깨끗한 마음을 사심없이 바칠 때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의연히 앞을 막아서는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며 갯을 복구해나갔다.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일이 나를 극도로 흥분시키였다.

3소대의 박영철이 돌격대에서 달아났던 것이다.

《동문 그가 달아나는것을 눈뜨고 뻥히 보기만 했소? 왜 따라가 다리를 분질러놓지 못했소?》

나는 애꿎은 3소대장을 불러 무작정 다그어했다.

《밤고양이처럼 한밤중에 몰래 달아나는걸 전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당장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만두오. 갈 사람은 가라고 하오. 후날에 후회하지 않나 두고보오. 에이!》

나는 주먹으로 허공을 휩 내리찍으며 돌아서버렸다.

나의 이런 데설곳은 행동을 선숙어머니가 식당쪽에서 조용히 지켜볼줄은 몰랐다. 나는 영철의 일을 러단에 보고하고나서 별스레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한자리에 그냥 앉아있었다. 선숙어머니가 출입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선것은 바로 이때였다.

《대장동무, 난 래일 떠나겠어요.》

《아니, 왜 벌써...》

《벌써라니? 여기 온지 한주일이 되었는데. 대장동문 일에 몰리워 날자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구만. 내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할가 하는데 들어주겠나?》

나는 여느때없이 새삼스럽게 말을 꺼내는 그가 이상스러워 의아한 눈길로 보았다. 잠시 온화한 눈길로 나를 찬찬히 마주보던 그가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내가 대장동무를 처음 만났을 땐 정서도 있고 감정도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달라지는것 같구만. 그러다가 대장동무의 성격이 이지러질가봐 걱정스러워지네. 그렇게 되면 오늘은 대장동무가 한 대원을 내던졌다면 래일에는 돌격대전체를 무시해버릴지 모르네.》

《영철인 한달전에도 달아났습니다. 그는 일이 힘들고 규률생활이 싫으면 달아나군 합니다. 그를 데려왔잖아 또 달아날건 불보듯 뻔합니다. 이젠 그를 더 생각하고싶지도 않습니다. 될대로 되라지요.》

마음속의 불만을 누르지 못하고 감정이 내키는대로 입을 놀리던 나는 선숙어머니의 얼굴표정이 한층 어두워지는것을 보고서야 실언을 깨달았다.

선숙어머니는 가볍게 숨을 내쉬였다. 그 숨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내 귀를 자극하였다.

나는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는것을 느끼였다. 무슨 까닭일까? 왜 그럴까? 허전한 마음은 좀처럼 가셔지지 않았다.

그날밤으로 선숙어머니는 돌격대를 떠났다. 다음날 떠나겠다고 하던 그가 갑자기 떠난것을 보고 나는 우직한 자신을 꾸짖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뜻밖에도 영철이가 돌격대에 나타났다. 나는 주먹으로 그의 동가슴을 한대 췌박고싶은것을 꼭 참고 견디였다.

《왜 돌아왔어? 썩 사라져. 우리 돌격대에는 너 같은건 필요없어.》

여느때 같으면 우뚝뻗이 살아났을 그가 고개를

폭 떨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모욕적인 말도 다 수궁할 태도였다.

《대장동지.》

그가 갑자기 울분을 토하듯 격하게 입을 열었다.

《나같은 놈을 왜 그냥 둘니까?》

주변을 둘러보던 영철은 팔뚝만큼 굵은 몽둥이가 눈에 뜨이자 그것을 닦고 집어 내앞으로 내밀었다.

《이걸로 내 다리를 본질러놓으십시오. 그래도 난 대장동지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객기를 부리지 마오. 무슨 동정을 사고싶어 그러오?》

나는 그를 쏘아보며 쓰겁게 웃었다.

《난 동정을 받고싶어 그러는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난 그 누가 저를 타매하고 내쫓아도 돌격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의 두눈에 눈물이 핑 고여올랐다.

어찌서인지 나는 그의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에서 솟아오르는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도 달라질수 있을까?

영철은 눈굽을 넘어나 불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념을 잃고 계속 말했다. 처음보다 좀 진정된 목소리였다.

《대장동지, 선숙어머니가 성천이모네 집에 있는 저를 찾아왔답니다. 처음에 전 머리수건에 성에가 하얗게 불린 그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대장동지, 전 다시는 동지들을 괴롭히지 않고 돌격대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어머니와 약속하였습니다. 전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

입이 얼어붙은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영철의 얼굴만 묵묵히 바라보던 난 고개를 떨구며 돌아섰다.

(그런데 어머니는 영철이가 성천에 있다는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을까? 나도 모르고있었는데... 아니, 난 애당초 그의 행처를 알고고도 하지 않았지.)

x

얼핏 보면 갱복구는 편파성없이 진행되는듯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루는 영철이가 몸에 열까지 나면서 다리를 쓰지 못해 쓰러졌다. 습기에 심한 관절염이 온것이였다. 나의 실책이였다. 영철을 병원에 입원시키고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대원들을 찾아내여 갱에서 철수시켰다. 지금껏 뼈마디가 붓고 다리를 저는 대원들이 있었지만 갱복구만 생각하던 나머지 오늘과 같은 일이 초래된것이였다.

그들을 철수시키고보니 갱복구가 은근히 걱정되였다. 래일 또 다른 대원들을 철수시키게 될지 누가 알라.

(어떻게 할것인가? 이대로 대원들을 혹사시키다

가는 다 쓰러질수 있어. 이제라도 실패를 려단에 보고하고 도움을 받는것이 좋지 않을까?)

나는 납덩어리처럼 무거운 생각으로 옹기중기 앉아 휴식을 하고있는 대원들을 한사람한사람 둘러보았다.

어떤 대원은 손에 입은 상처를 붕대로 감는가 하면 또 어떤 대원은 잠든듯 눈을 감고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대원은 옆동무와 소곤소곤 말을 주고받고있었다. 그들의 온몸을 덥히고 심장을 끊게 하던 랑만과 활기, 정열이 사라져버린듯싶었다. 나는 느닷없이 어깨숨을 내쉬었다.

갱천정에 맺힌 물방울을 점도록 쳐다보던 나는 갱안으로 걸어오는 누군가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리었다. 안전등을 든 두사람이 우리쪽으로 오고있었다. 엉거주춤 일어서며 그들을 보던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도당책임일군과 려단장동지였다. 움쭉움쭉 몸을 일으킨 대원들도 의아한 눈길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이 온 시간은 새벽 5시경이였다.

도당책임일군은 내 손을 힘껏 잡아쥐었다. 그의 손에서 내뿜는 뜨거운 열기가 삼시에 온몸에 퍼지는듯싶었다. 나는 그 어떤 비상하고 가슴벅찬 일이 금시 닥칠것 같은 예감을 느끼며 가볍게 몸을 떨었다.

《대장동무.》 하고 도당책임일군은 잠간 말을 끊었다가 석침한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새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날 길을 잘못 들어 시대밖으로 밀려났던 우리 도안의 청년들이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하고 어렵고 힘든 부문인 탄광으로 달려나간 자료를 보시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 그들의 소행을 접하고보니 천군만마를 얻은것 같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는 뜻깊은 말씀이 계시었소.》

《?!》

가슴을 치는 큰 충격에 한순간 얼터름해있던 나는 저도 모르게 도당책임일군의 가슴에 와락 안기였다.

도당책임일군은 나를 힘껏 껴안으며 말했다.

《대장동무의 심장이 내 가슴을 막 두드리는구만. 젊은 사람의 심장이 확실히 달라. 허허.》

갱안에는 정적이 깃들었다. 한차례의 걱정과 흥분이 가라앉은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무들에게 최상의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소. 이제 물길굴이 완공되면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거요. 려단장동무, 길영조청년돌격대가 보름동안에 갱을 복구하겠다고 했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한주일이 남았구만. 길영조청년돌격대는 결의한 날자에 끝낼거요. 우린 민소. 대장동무, 갱이 복구되면 알려달라구. 그땐 내 동무들을 한명씩 다 업어주겠소.》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더니 내 손에 쥐여주었다.

《동무들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줄 생각만 하다보니 빈손으로 왔구만. 담배라도 한대씩 나누어 피우라구.》

깡복구는 또다시 활기있게 벌어들였다. 우리는 닷새만에 깡복구를 완전히 끝내었다.

보름후 드디어 6사경을 관통시킬수 있는 결정적인 시각이 도래하였다. 마지막착압을 끝낸 돌격대원들은 발파구멍에 화약을 장약하였다. 심지에 불을 달려고 할 때 영철이가 대원들을 헤집고 나섰다.

《대장동지, 제가 발파심지에 불을 달게 해주십시오. 선숙어머니는 6사경을 관통시키면 절보고 먼저 소식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전 마지막발파소리로 그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철동무!》

나는 영철의 어깨를 꼭 잡아쥐며 마음속으로 뇌이었다.

(그렇게 하오. 우리 6사경관통소식을 발파소리로 온 나라에 알리지요.)

쿵! 쿵! 웅글진 발파소리가 런던아 갱안을 울리었다. 발파소리가 몇자 대원들은 일제히 환성을 울리었다.

《우리는 6사경을 관통시켰다.》

서로 얼싸안고 더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대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눈앞에는 배수경공사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겪고 체험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비록 길지 않은 나날이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억속에 지워지지 않고 일생 남아있을것이다. 얼마후 우리는 갱을 나섰다. 햇숨같은 구름이 몇송이 떠있는 맑은 하늘에서 눈부신 태양이 한껏 쏟아져 내렸다. 그 태양을 처음보듯 고개를 젓히고 오래도

록 쳐다보던 나는 대원들이 와짝 떠드는 소리에 눈길을 돌리었다.

《아니, 선숙어머니가?》

나는 그한테로 달려갔다. 대원들의 어깨너머로 나를 알아본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마주 걸어왔다. 나는 그앞에 우뚝 서며 거수경례를 하였다.

《길영조청년돌격대 대장 함영호가 보고합니다. 어머니, 우린 6사경을 성과적으로 관통시켰습니다!》

선숙어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어리었다.

《어머니, 6사경을 관통시키는 마지막발파심지의 불을 영철동무가 달았습니다.》

《영철이가 마지막장식을 했구만.》

《대장동지, 오늘을 영원히 추억할수 있게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나는 영철이의 말에 머리를 힘있게 끄덕이었다. 우리는 선숙어머니를 가운데 세우고 6사경앞에 자리를 정했다.

찰칵!

이렇게 되어 선숙어머니는 길영조청년돌격대원들과 함께 뜻깊은 사진을 남기었다. 지금도 선숙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군 한다.

그때마다 대원들이 사진을 찍자고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지만 가볍게 사양하군 하였다.

《난 사진보다 돌격대에 마음을 남기고싶구나.》

나는 가끔 선숙어머니가 한 이 말을 되새겨보군 한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생을 살면서 삶의 자취를 남기는 법이다. 하지만 어떤 자취를 남기는가에 따라 아름다운 선물로 여어지기도 하고 불협화음으로 되기도 한다. 아름다운 선물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 시대의 찬가로 계속 불리우게 된다.

오늘도 선숙어머니는 지칠줄 모르는 정열로 삶의 아름다운 선물을 변함없이 새겨가고있다.